

20년 만의 여름방학

강문식*

숭실대학교 사학과에 부임한 지 한 학기가 지났다. 숭실에서의 지난 6개월을 20여 년 동안 근무했던 지난 직장에서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방학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전 직장이 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원이기는 했지만, 연구원의 업무는 방학 기간에도 학기 중과 똑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학이 따로 없었다. 오히려 7~8월에는 상반기에 시작된 연구 사업의 중간 보고서를 접수하고 하반기에 새로 착수하는 사업을 발주했으며, 1~2월에는 최종보고서 접수·심사 등의 사업 결산 업무 때문에 학기 중보다 더 바쁘게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지난 1학기에 숭실대학교로 오면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성적 처리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하면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 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 방학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지난 두 달을 돌아보면 2학기 강의 준비와 책 원고 작성, 논문 자료 검토 등으로 바쁘게 보냈지만, “이번 방학에 나는 이것을 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일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방학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학부 3학년 학생들과 한문 스터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디를 한 것이다. 1학기에 진로 상담을 했던 학생들 중에 한문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방학 때 시간이 맞으면 함께 공부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다. 기말고사 후 그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몇몇 학생들이 더 참여하여 팀이 만들어졌고, 이 친구들과 함께 7~8월 두 달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한문 강독 스터디를 했다. 올해 송실대학교로 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의 하나가 정규강의 외에 학생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갖는 것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꿈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스터디를 함께 한 친구들은 모두 19학번으로 나와 30년의 학번 차이가 나는데, 생각해 보니 나도 정확히 30년 전인 1991년 여름에 처음 한문 공부를 시작했었다. 좀 억지스럽지만 이것도 재미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름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도 겹쳐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스터디에 잘 참석했으며 연습과 발표도 열심히 준비해 왔다. 지난주로 방학 중의 한문 스터디는 마무리를 지었고,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학기 중에도 스터디를 계속하기로 했다. 학과 수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쁜 중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참 고맙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도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더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